

‘技術’의 本質과 建築的 條件에 대한 研究

- 아리스토텔레스와 오르데가 이 가세트의 思惟方式을 中心으로 -

卞泰浩

(성균관대학교 조교수)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몇 세기를 통하여 우리의 ‘기술’(technology)에 대한 인식체계는 전통적인 경험주의에서 과학적인 실험주의로의 큰 변화를 겪었으며, 특히 과학 ‘기술’의 광범위한 발전과 그 결과로 전 인간환경에 있어 급진적인 변화를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동시에 도구의 창안으로 특징지어지는 인간과 ‘기술’ 사이의 오랜 관계양태가 자연과의 유기적 거주환경으로부터 그 자신을 분리시키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조건 속으로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비록 현대 ‘기술’의 발전이 물질적 측면에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성공적 변화를 가져오긴 하였으나, 지난 세기동안 현대화(modernization)과정, 특히 ‘모더니즘 건축’(Modernism architecture)의 역사를 돌아 볼 때 그 엄청난 변화가 인류의 문화적 측면에서 문명화(civilization)나 현대 건축에 항상 미덕만이 되어오지는 않았으며,

더욱이 하이데거(M. Heidegger)의 정의처럼 ‘기술’(technology)이 존재적 ‘진실에 대한 시적 들어냄’으로의 역할을 하였는지 우리는 지금에 의문을 갖게 된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오늘날 ‘기술’과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모호하고 불-투명한 듯하다.

이런 불-투명성은 건축과의 관계에서 더욱 분명하다. 특히 밴햄(R. Banham)의 지적처럼 근대 이후 둘 사이의 존재관계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 듯 이전과 큰 상이함을 보이며, 그 원인 또한 지금에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본질적 원인을 논하는 건축과 과학기술의 관계 그리고 그 각각의 존재본질에 대한 모호한 이해의 지난 2세기 동안의 건축역사 때문으로 보고 싶다.¹⁾ 다시 말해, 철학가 폴 리콜이 제시하는 현대화(modernization)보다는 문명화(civilization) 혹은 ‘문화적-현대화’(cultural-modernization)로의 현대건축의 발전이나 ‘기술’과의 관계성은 지금의 해체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의 1997년도 성균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18세기 이후 건축과 과학기술의 모호한 형식주의적 진행과정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해는 Alberto Perez-Gomez의 Architecture and the Crisis of Modern Science를 참조.

나 포스트모던 등 여러 이름의 새로운 표현방법에 대한 갈등적 논의와 실험에 앞서 '기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존재의미에 대한 우리의 재-인식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이 인간에게 어떠한 관계로 존재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히 인식되고 설정되지 않은 경우, 그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긍정과 부정의 다양한 표현방법이란 단지 우리의 눈을 잠시 즐겁게 할 심미적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두 대상 - 건축과 기술 -의 존재본질에 대한 연구중 '기술'에 대한 부분만을 여기서 논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난 오랜 세기동안 '기술'의 존재의미로 받아들여진 전통적 인식방법과 현대적 해석으로의 실존철학적 인식방법을 통하여 그들 공통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기술'의 존재의미 혹은 궁극적 가치를 '기술'에 대한 현대건축의 중요한 인식체계로 재-소개해 보려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기술'의 본질적 의미를 철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진행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단계는 '기술'에 대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우리의 인식방법으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법을 그 대표적으로 소개한다. 그의 글에 '기술'이 주된 사고의 대상이 되어 논하여진 곳은 없다. 대신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글을 통하여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다른 여러 주제들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핵심적인 내용만 새롭게 논리-전개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술'에 대한 전통적 인식체계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실존 철학적 이해와 함께 할 것이다. '기술'을 철학적 사고의 독립 주제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실존 철학자로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와 오르테가 이 가세트(José Ortega y Gasset)를 들 수 있다. 하이데거의 철학적 사고는 그 양이 크고 다른 주제와의 관계가 복잡하여 별도의 논문 주제로 연구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여기서는 스페인 철학자 가세트의 이해만을 전통적인 것에 대한 또다른 대조적 인식방법으로 소개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현대건축의 필요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할 '기술'의 존재적 본질 혹은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 보려는 것으로 상당부분이 건축적이기 보다는 철학적인 서술형식이며, 또한 건축설계에 필요한 기술-방법적이기보다는 계획 이전의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문제의 가능한 해석을 찾으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2. '기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

2-1. 증성적 개념으로의 '기술'

오늘날에도 '기술'(technology)에 대한 우리의 인식방법은 고대의 '기술본질'(τέχνη)에 대한 전통적 사고개념에 여전히 뿌리를 두고 있는 듯하다. 그들에게 '기술본질'이란 인간이 '기술방법'(techniques)이라는 총체적 개념속에 단순히 포함시킬 수 있는 도구나, 기계, 기구들 그리고 물리적인 재료들이나 과학적인 것들과 같은 인간이 목적하는 것을 달성-가능토록 도와주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 자체에 어떤 의미를 지니거나 스스로 목적이 되어질 수는 없으며, 단지 인간이 의도한 어떤 목적에 도달하거나 무엇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방법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에 본유적 운동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또한 그 자체의 본성(nature)을 스스로 밝혀 나갈 수 있는 어떤 활동(activity)과 같은 것도 아니다.²⁾ 이 경우 '기술'이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비본질적인 것이 되며, 그것의 가치나 의미는 그것이 무엇에 대해 의도적으로 지향하게되는 질서체제(ordering)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이러한 고대 사고방법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무엇을 생산해 놓는 것(produce)이라는 '기

2) Aristotle. Ethic: Book VI 4와 Metaphysics: Books VII 7, 8, 9 참조.

술'의 그리스 어원인 '테크네'(technē)에 기초를 두고 있다.³⁾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무엇'이란 어떤 가능한 대상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생산'이란 무슨 특성을 지닌 행위인가에 대한 앞선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기술'의 '중성적' 혹은 '중립적'(neutral)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자연 혹은 본성(nature)에 의해 존재되어지는 본유적 존재대상과 다른 원인들에 의해 존재되어지는 인위적 존재대상 사이의 구분을 가능케 한다. 이들중 본유적 존재대상이란 동·식물과 대지를 구성하는 불, 공기 그리고 물들과 같이 그 자체에 변화-운동력의 근원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운동력'(movement)이란 어떤 경우에는 장소의 이동에 따른 운동이나 그 자체의 성장과 쇠퇴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양적인 변화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운동과 활동에 대한 본원(本源, principle)과 원인 그리고 그 대상의 첫 출현에 작용하는 어떤 힘들을 의미한다. 개개의 본유적 존재는 본질적인 실체(substance)인 동시에 그 출현에 있어 항상 본성에 따라 존재하는 '본원'(substratum)이 되며, 이 경우 '본성'이란 그 자체에 운동과 변화의 법칙을 내재하고 있는 사물에 가장 근접하게 기초하는 '질료'(matter)가 된다.⁴⁾ 그래서 무엇에 대한 본유적 형태는 그것의 성장과 작용을 결정하는 원리가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중성적'이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인

위적 존재대상으로의 침대나 의복과 같은 것은 변화에 대한 본유적 욕력(慾力)을 그 내부에 지니지 않은 기술적 생산물이 된다. 이러한 변화의 욕력은 돌이나 흙 혹은 다른 재료들의 혼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비본질적인 것이며, 그 본원과 존재원인이 집이나 제품에서처럼 외부의 다른 어떤 것에 의존되어 있는 우연적인 존재대상인 것이다.

다시, 세상의 존재대상이 무엇이든 가변을 통해 다시 존재되어진 것, 즉 가변적인 모든 것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에게 크게 두가지 영역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 하나는 '제작' 혹은 '생산'(makes or products)에 의한 가변과, 다른 하나는 '행위'(action)에 의한 그것이다.⁵⁾ 두 영역 모두 그 작용에 있어 인간의 '이성적 사고'(reason)과정을 필수적으로 내포하며 궁극적으로 어떤 '선'(善)을 목표로하나,⁶⁾ 그들의 특성

3) Technology와 Art의 그리스 어원으로 technē의 어원적 의미에 대한 설명은 1994년 6월 대한건축학회논문집에 발표된 필자의 논문을 참조.

4)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성'(nature)에 대한 의미개념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물의 형(型, shape) 또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구성되는 형태(form)로 인식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잠재적인 '살'과 '뼈'는 어떤 방식(formula)에 따라 형태(form)를 획득하기 전까지 그 자체의 본성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특히 사물이 존재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본성'(nature)을 이해할 경우 '본성'에 의해 존재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무엇에서 시작되었느냐를 말하기보다 그것이 운동하여 움직이는 마지막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이 경우 사물의 진정한 본성은 그것이 기초하는 운동의 '문제'(matter)가 아니라 최종의 '형'(shape)으로 이해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제 2권 제 1장 참조.

5)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중에 '기술'의 속성에 대한 그의 이해가 가장 잘 표현된 부분은 '도덕률'(Ethic) 제 6권 4장에서 볼 수 있다. 이 부분에는 '기술'과 '건축술'의 속성 그리고 그 관계가 짧게나마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가 건축에 대한 고대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아래에 중심부분만 짧게 인용해본다. "건축술은 하나의 기술(craft)이요, 또 본질적으로 이치를 따라 제작할 수 있는 상태(productive disposition)의 하나이다. 그리고 또 어떤 기술(craft)치고 이런 상태 아닌 것이 없고, 또 이런 상태치고 기술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기술이란 참된 이치를 따라 제작할 수 있는 상태와 동일한 것이다. 모든 기술은 무엇을 생성, 즉 존재케 하는 것에 관계한다. 즉, 그것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리고 그 시초가 제작자에게 있고 제작되는 물건에 있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를 궁리하고 살피는데 관심을 둔다. 기술은 필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생성하는 것들과 관계하지도 않고, 또 자연적으로 본성에 의해 존재하는 것들과 관계하지도 않는다. 이 후자는 그것들 자체 속에 그 始原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작과 행동은 서로 다른 것이어서, 기술은 제작에 상관하는 것이요 행동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Aristotle. Ethic, Book 6-4.

6)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사색은 그의 글 '도덕률'(Ethic) 전반에 걸쳐 여러 주제를 통해 논하여지고 있으나 그 의미가 그다지 명료해 보이지는 못하다. 그러나 건축과 '기술'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는데 관계가 될 수 있어 아래에 간략한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한다. 그에게 모든 기술과 탐구, 또 모든 행동과 추구는 어떤 선(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목표들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 즉,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과를 생

은 동일하지는 않다. 여기서 먼저 '행위'란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고 완성시켜나가는 철학이나 정치(politics)와 같은 것인 반면 '생산'은 무엇을 제작하여 인위적으로 존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생산'은 그 스스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무엇 혹은 본유경향을 그 내부에 지닌 대상에 관계하지는 않는다. 대신 인간이라는 어떤 행위자 혹은 작인(作人)의 의도에 의해 어떤 대상이 다른 어떤 대상으로 조작되어지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 경우 '예술'(art)이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성적 사고를 통하여 무엇을 인위적으로 제작하는 생산적 개념의 하나이며, 예술가의 역할 또한 자연으로부터 얻은 어떤 물체(matter)에 새로운 형태를 부여하는

게 하는 활동을 떠나 그러한 성과가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그에게 있어 '선'이란 '존재'만큼이나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에 플라톤과 같이 모든 '선'에 공통되는 '이デア'(idea)란 존재할 수 없다. 대신, 최고의 선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으로서 그것 자체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며, 우리의 행위에 대한 궁극적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오직 하나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겠고, 또 만일 그러한 것이 하나 이상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이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겠고, 그래서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에게 있어 이러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행복'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선, 즉 행복은 그 자체 외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며 자족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다시 최고의 '선' 혹은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인간의 기능과 관계가 있다. 여기서 인간의 기능이란 피리를 부는 사람이나 이발사처럼 어떤 종류의 생이요, 이 생은 이성적 원리를 내포하는 정신의 활동 내지 행위이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의 기능이란 이러한 활동 내지 행위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며, 또 어떠한 행동이나 거기에 알맞은 '덕'(excellence 혹은 virtue)을 가지고 수행될 때 잘 수행되는 것이기에 인간의 선이란 결국 '덕'(excellence)에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다라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이란 '덕'을 따르는 활동을 의미하며, 당연히 그것은 최고의 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최고의 덕은 우리를 속에 있는 최선의 부분의 덕일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본성을 지배하고 인도하며, 또 아름답고 신적인 것들을 상념하는 이 부분이 이성이건 혹은 다른 어떤 것이건, 그 고유한 최고의 '덕'에 일치하는 활동이 완전한 행복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바로 관조적인 것(contemplation)이다.

기술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예술가가 조작하는 형태의 새로운 부여 방법은 자연적인 본성에 의한 방법과 동일하지는 않는다.⁷⁾

건축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기예적(craft)인 것, 즉 이성적인 사고를 동반하는 특별한 생산적 특성이 강조되는 무엇이다. 여기서 모든 기예(craft)와 기교(skill) 역시 무엇을 만들어 산출하는 그래서 그 대상이 존재 가능케 하는 것이나, 그 생산의 시원(始原)적 힘은 대상 내에 잠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영혼에 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예와 동일한 생산으로의 특성을 지닌 '기술방법'(technique) 또한 자연적 본성에 의해 존재되는 대상, 즉 인간이나 동·식물처럼 자연적 필연성이나 본유(本有)적 존재성향을 지닌 대상의 존재-본성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떡갈나무로 어떤 장인(artisan)이 새로운 모양의 침대를 제작했을 때, 그러한 작업이 떡갈나무의 본유적 특성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며 단지 외형적인 형태의 변화에 작용되어진 것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술적 제작'(technical production)이란 그 자체의 정의(definition)와 작용(operation)에 대한 본유속성을 지니지 않으므로 중성적인 것이다. 그것의 작용방식과 가치 그리고 의미성들은 그래서 그것이 제공-부합시키는 인간의 목적에서만 발견되어 진다.

2-2 행위적 도구로의 기술의 가치

'기술'의 중성적 특성과 그로 인한 인간의지에 대한 의존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다양한 '기술방법'이나 그 의미의 전개는 그것이 인간 삶에 필요한 것이며, 비록 인간사회의 구성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인간에게 음식이나 보호처 그리고 의복의 제공과 같은 삶에 가장 기본적인 필요란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⁸⁾ 아리스토텔레스

7) A. E. Wardman and J. L. Creed. trans.. The Philosophy of Aristotle. A Mentor Book: New York, 1963 (Ethic: Book VI 4와 Metaphysics: Books VII 7, 8, 9).

에게 그 필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의 글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술 혹은 예술(art)로의 건축은 다른 어떤 지식의 형태처럼, 주관적이기보다는 보편적인 것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대한 단순한 만족, 예를 들어 인간의 즉각적인 생물학적 필요 외에 정신적인 것에 대한 필요-만족을 포함한다.⁹⁾ 그래서 '기술'(technology)에 있어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유기적 필요에 대한 만족을 넘어서, 악기에서 장식에 이르기까지 비-공리적인 생산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술'이란 제작으로의 '생산'(products)과 수단으로의 '기술방법'(technics)

모두를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생산물은 음식이나 옷과 같은 소비재로서 특정한 목적의 편익을 위해 즉각적으로 이용되는 반면, 다른 상당 부분은 의도된 최종 목적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 도구를 고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구분과 유사하게 우리는 전자의 공리적인 기술을 '생산적 도구'(instruments of production)로, 후자의 비-공리적 기술을 '행위적 도구'(instruments of action)로 이름 지을 수 있다. 이러한 수단으로의 '행위적 도구' 혹은 '기술방법'(technic)은 어떤 과정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반면 '생산'으로의 소비재는 즉각적인 이용 외에 어떤 결과를 산출하지 못한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생은 행위이지 생산이 아니다."¹⁰⁾ 이런 점에서 '기술'의 '행위적 도구' 혹은 '기술방법'으로의 측면은 그에게 공리적 이용이 강조된 '생산'으로의 기능보다 더욱 더 중요하며, 인간의 삶과 존재의 문제에 좀 더 보편적이며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지닌 행위로 해석 가능하다.¹¹⁾

전통적인 개념으로의 '기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인식방법은 현대사회의 문화적 속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몇 가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첫째, 자연에 대한 현대과학적 시각은 전통적 개념에서처럼 그것의 형이상학적 기초를 필연적이고 명백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둘째, 현대문화속에서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의 '기술'의 역할관계가 분명히 나타나 보이질 않는다. 다시 말해, 19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현 문화의 어떤 한 부분도 '기술'이란 범주밖에 존재해 보이질 않으며, 특히 어떤 하나의 관계정황에

8.) *Metaphysics I, 1; also Politics III, 9.*

9)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지식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인간의 감각을 통해 얻어지는데, 무엇보다 사물의 속성을 이해하도록 할 뿐 아니라 사물들간에 존재하는 많은 특성적 차이를 들어내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 감각이란 어떤 동물에게는 본유적인 것이며, 특히 기억(memory)이란 것이 감각을 통해 발달되게 된다. 기억 또한 무엇에 대한 알(learn)과 경험(experience)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동물의 지적 발달 정도를 나타낸다. 어떠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다른 동물들은 인상(impression)과 기억(memory)을 통해 경험의 단지 일부만을 소유하며 사는 반면, 인간은 풍부한 경험과 기예(art) 그리고 계산능력을 지니며 산다. 이 경우 동일 대상에 대한 여러 경험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결과(effect)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경험을 통해 얻어진 많은 일반개념으로부터 사물에 대한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판단이 형성되었을 때 기예와 과학은 인간에게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결과의 생산을 의미하는 기예는 궁극적으로 경험을 통하여 가능하다. 단지 그 차이는 경험이 개인적인 지식인 반면 기예는 보편적인 지식인 것이다. 또한 기예를 지닌 사람은 경험만을 지닌 사람에 비해 사물의 존재발생에 대한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더 현명하며 존경스럽다. 그러나 어떤 기예는 인간의 삶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대상'(necessities)에 관계하는 반면 다른 어떤 것은 '휴양적인 대상'(recreations)에 관계한다. 후자에 관계되는 과학은 그것이 즉각적인 유용함을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기에 더욱 더 현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예나 과학이 발생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과학이 충분히 개발되어 사람들이 여가(leisure)의 시간을 소유하게 될 때 가능하다. A. E. Wardman and J. L. Creed. trans.. *The Philosophy of Aristotle. A Mentor Book: New York, 1963 (Metaphysics: Books 1).*

10) "An instrument, as the term is usually employed, means something that helps to make or produce something else. ... Production and action are different in kind; since both require instruments, these too must exhibit the same difference. Life is action, not production *Politics. Book I-4* 그리고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Ethics I-2.*

11)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술의 비-공리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는 *Metaphysics BookI-1*을 참조.

서 수단으로의 의미존재가 다른 하나에서는 목적이 되므로 앞서 설명한 목적에 대한 '기술방법'의 총체적 배열(total arrangement of technics)로의 '기술'의 전통적 정의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래서 현대의 복잡한 기술문화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목적으로부터 수단을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 수단과 목적은 상대적인 것이 되어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해 분명한 도덕적 우위를 지닐 수는 없다. 어떠한 이러한 사고체계에 대한 비평적 논의는 본 논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이므로, 대신 이러한 전통적 인식방식에 대해 가장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기술'에 대한 현대의 실존철학적 이해를 다시 분석-소개해보려 한다.

3. '기술'에 대한 실존철학적 사고

3-1. 인간 삶의 필연적 조건으로의 '기술'

실존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José Ortega y Gasset)에게 '기술'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현존을 위한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그의 '기술'본질에 대한 이해는 인간에게 '필요'와 '현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 각각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가능하다. 먼저, 그에게 '기술'이란 인간 삶의 근원적 필요조건으로, 예를 들어 먹는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듯이 기술은 인간의 삶 자체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요들 중의 필요로 기술 즉 인간의 삶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전적으로 자기결단에 따라서 살며, 이 경우 삶의 필요는 의지행위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단지 주관적 의미에 있어서만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삶은 유기적 필요들의 체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도리어 자연적 필요에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가장 인간적이라는 삶의 광대한 영역에 관여하기 위해, 제 2단계 계열의 행위 - 도구 및 장치의 제작 - 를 발명하고 실현한다. 가세트는 이 행위들을 인간에게 고유한 기

술적 행위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행위는 인간의 유기적 필요-만족을 넘어서서 그리고 '과잉필요' 혹은 만족을 위해서 인간 자신이 자연에 부과한 개조, 즉 인간과 시원적인 자연 사이에 삽입된 새로운 자연의 창조를 지향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가장 원초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되는 선천적인 필요들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의지에 따라 탄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단순히 사는 것만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적 필요에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잉필요'-만족을 통하여 '잘 사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과잉생산의 방법은 바로 기술을 의미하며, 인간, 기술, 잘 삶은 동의어가 된다. 그리고 인간의 잘 삶의 의미에 있어서 삶은 항상 무한할 정도의 가변적인 개념이며, 기술 또한 인간적인 필요들에 의하여 야기되고 제기되는 행위들의 체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세트에게 모든 기술은 인간의 원초적인 활동의 축소를 수반하며, 모든 기술을 그 배후에서 고무하는 활동력은 곧 노력을 절약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을 경감시킨 후에 남는 자유 에너지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3-2 자기창조로의 '기술' 그리고 현존

가세트는 인간이 세계 또는 자연 가운데 현존할 수 있는 가능한 관계 양상을 세계가 인간에게 편의나 곤란만을 제공하는 일원적 관계가 아닌 편의와 곤란 모두의 복잡한 망으로 둘러싸고 있는 존재관계라고 말하고 있다.¹²⁾ 즉 세

12) 가세트는 인간이 세계 또는 자연 가운데 현존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러나 부정적인 또다른 관계양상으로 다음의 두 예를 들고 있다. 첫째, 자연은 인간에게 자연 가운데서 현존하는데 필요한 편의 이외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관계로 존재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존재와 자연의 존재가 서로 일치하고 그리고 인간도 일종의 자

계 내에는 편의(facilities)와 곤란(difficulties)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관계양상으로, 이 경우 인간은 세계의 곤란에 직면하더라도 편의를 발견하려하며 이 순간 자기의 현존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현존재는 세계내의 수동적 존재가 아닌 세계에 순응하고자 하는 부단한 투쟁이다. 예를 들어 자연의 돌은 그것의 현존이 주어질 뿐이며 존재를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으나 인간은 매순간 자기의 고유한 현존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이러한 존재론적 관계성격은 그에게 있어 인간의 존재와 자연의 존재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존재는 그 일부가 자연에 친근해 있고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 인간의 존재는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초자연적이고 일종의 존재론적인 반인반마(半人半馬)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존재는 그 반이 자연에 침잠해 있고 그 반은 자연을 초월해 있는 것 등과 같은 기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인간에 있어서 자연적인 것은 자기자신에 의해서 실현된다. 즉 그것은 인간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정확히 말해서 왜 인간이 자연적인 것을 자기의 진정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이유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초자연적 부분은 처음부터

그리고 당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열망, 삶의 계획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진정한 존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아라고 일컫는다.”¹³⁾

그에 따르면 이러한 자연과의 불일치 속에서 인간이란 육체적인, 정신적인 현실성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 어떤 동물의 존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변적이다. 다만 인간이란 존재하고자 하는 열망, 즉 계획 자체인 그 무엇으로, 삶이란 이 경우 현존재의 일정한 계획 또는 기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자기의 자아 또한 고안된 계획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 현존(existence)이란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하에서 그들 자신, 즉 그들의 열망(aspiration)을 실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세트는 고대 철학적 개념과는 구분된 독특한 존재로 인간을 특징짓고 있는데, 인간의 존재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재에서 성립하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재성격은 그에게 세계 내에 있는 인간 이외의 존재, 즉 그 존재양태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바의 것에서 성립하고 그 가능성이 그 현실성과 일치하는 그러한 존재인 이미 있음의 존재로의 사물(thing)과 이것 저것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열망 그 자체를 의미하는 인간 사이에 존재의미적 측면에서의 구분을 가능토록 한다.

가세트에게 있어, 육체와 정신은 사물이다. 그러나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는 결코 사물이 아니며 무엇으로 존재하려하는 끝없는 투쟁이다. 존재의미로의 열망 혹은 계획이란 그래서 주위 세계에 대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측면을 영향 끼치며 다시 그 세계는 이 영향에 대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저항함으로써 반응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환경, 세계 또한 본질적으로 인간이 그의 열망과 계

연적 존재임을 의미하는 관계양상으로 이 경우 인간이란 전적으로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하며, 다시 인간은 돌이나 식물 그리고 다른 동물처럼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그리고 필요로 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 내에 현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며, 인간의 욕망과 그것의 만족은 동일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존재자는 세계를 자기 자신과 다른 것으로서 경험할 수 없으며 인간은 마치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세계를 통해 존재하게 된다. 둘째, 첫 번째와는 정반대로, 세계는 인간에게 곤란 이외에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관계로 존재할 수 있다. 즉 세계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대립적인 관계양상으로, 이 경우 인간은 세계 내에 안주하며 현존할 수 없다. 인간의 삶도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기술도 존재할 수 없다.

13) José Ortega y Gasset. "Man the Technician" in *History as a System and Other Essays Toward a Philosophy of Histo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41, p.111.

획을 실현시킴에 있어서 우연히 직면하는 편의와 곤란의 종합으로 우리가 내린 해석된 대상에 불과하다. 자연과 세계는 사물의 개념과 같이 일정한 고정된 존재를 가지고 있지도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존적으로 현존하지도 않는다. 가세트에게 있어 이것은 우리가 최초로 직면하는 바의 것에 대한 지성의 해석적 반응의 결과로, 우리가 최초로 직면하는 바의 것은 우리와 떨어져서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단지 편의와 곤란을 부여하는 데서, 즉 우리의 열망과 관계를 맺는 데서 존재한다. 그래서 환경이란 인간 삶의 독특한 계획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편의와 곤란의 형태로서 응답한다.

일반적인 철학적 개념으로 현존이란 본질의 즉각적인 현존 혹은 현실적인 실현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세트의 실존-해석학적 이해에 따르면 인간만이 우주의 다른 존재자와는 달리 자기의 현존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며, 현존한다는 것은 그에게 '자기인 바 인간으로서'(as the man he is) 당장에 현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인 바 현존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인간의 삶' 혹은 현존은 여타의 존재와는 달리 현재적인 것으로서 주어지지 않으며, 해야 할 많은 과제, 자기의 존재적 본질과 같은 '자기자신인 바 계획'(program that is himself)을 형성하고 실현시키려는 실천적인 문제를 그에게 부여한다. 삶은 그래서 '해야할 것'(to do)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바로 '행위'(action)로 단지 이 행동의 근거 위에서만 현존할 수 있음을 가세트는 강조하고 있다. 이 경우 인간이란 바로 자기창조적이며 자기 만듦으로, 이러한 정의는 인간이 자기 본질의 근거에 있어서 기술인임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 삶으로의 기술적 행위란 무엇보다 아직 현존하지 않는 것을 현존시키려는 노력이며 계획이고, 바로 기술을 통한 만듦인 것이다. 그러므로 삶이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며, 사유, 이론, 과학은 이러한 '자기창조'(self-creation)에 필요한 요소로 삶에 대해 우선적이기보다 '행동' 다음에 오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

인간의 사유의 역사란 그래서 세계가 인간의 충분한 존재실현을 즉시 허용하지는 않기 때에 인간 자신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숨겨진 도구를 탐색하고 그 세계가 기계의 제작을 위해 제공하는 감추어진 가능성들을 발견하여 온 오래고 긴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인간이 기술에 대한 마법적 재능을 부여받은 동물로 믿는 것은 잘못이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은 동물적 과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과제, 초자연적 과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동물과 같은 원초적인 필요만족을 위해 다 쏟을 수는 없다. 대신 세계 내에서 자기의 존재를 실현시키려는 기묘한 추구에 자기의 정력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기 위하여 그의 힘을 기술발견을 통해 절약-한정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즉 우리는 기술이 가능한 장소에서 삶을 시작한다. 자연내에서 기술이 인간을 위해 열어 놓는 마법과 같은 '여가'(leisure)는¹⁴⁾ 인간이 자기의 초자연적 존재를 유숙시킬 수 있는 작은 방이며, 이것은 기술의 존재의미와 궁극적 목적이 기술 자체에서보다는 그 외부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 기술의 역할이란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과제에 따르는 그 노동을 경감시켜 주는데 있다.

4. 결론

나는 지금까지 '기술'의 존재-본질이란 무엇

14) 고대인들은 인간의 삶을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들은 제 1의 영역을 '여가'(otium)라고 불렀다. 여기서 여가란 행위의 소극성이나 무위로의 의미보다 지배, 조직, 사회적 교제, 과학, 예술과 같은 인간적인 의문들을 탐색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제 2의 영역은 원초적인 필요들을 만족시키고 여가를 가능토록 하는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대인들은 이것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성격을 적절히 강조하여 '여가의 부정'(nec-otium)이라 불렀다.

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두 철학가의 인식방법을 조사해 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기술'본질에 대한 그들의 철학적 사색방법의 비교-비평보다는, 고대와 현대개념으로의 그들 모두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기술'의 본질적 존재의미로 그것의 공리적 측면보다는 인간 삶에 대한 형이상학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다시 강조해 보려 하였다. 요약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기술'에 대한 사색적 개념은 생산이나 제작(make or produce)으로의 전통적인 '텍크'(technē)에 기초를 두고 있어, '기술'과 인간의 모든 '행동'은 궁극에 선형적인 어떤 가치로의 '선'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그 '선'이란 그에게 인간의 덕에 일치하는 정신활동으로¹⁵⁾, 특히 인간이 우주에 대해 지각할 수 있는 질서체제, 즉 인간의 고유한 이성을 통해 주어진 어떤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선'은 그에게 다른 동물에서도 볼 수 있는 생육을 위한 '생'(living)이나 감성지각적 '생'이 아닌 인간 고유의 정신에 대한 이성적 부분의 능동적 '생', 즉 인간의 이성적 원리를 따르거나 혹은 이것을 내포하는 정신활동으로의 '인간기능'을 통해서 설명-가능한 어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지배하고 인도하며, 또 아름답고 그리고 우주의 변화를 그 자체 수용하는 불변적인 실재와 같은 신성한 어떤 것들을 상념하는 정신활동의 이 부분이 이성적이건 혹은 신적이건 그것은 인간에게 완전한 '행복'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활동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선'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인 '관조'(contemplation)적인 것이다.¹⁶⁾ 이런 점에서, 가변적인 대상에 대한 인간기능의 관계인 실행(practice)나 공리적인 문제들이란 인간의 불변적인 대상과의 관계인 이론적이며 비공리적인 어떤 것들에 근본적으로 종속된다.

'기술'에 대한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해는 인간의 행위에 있어 어떤 계급단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술'이란 가장 낮은 단계의 그것이 된다. 왜냐하면 '기술'이란 사회의 안정된 구조속에 반영되어 있는 인간의 모든 이지적(理智的) 질서체, 특히 신성하게 받아들여지는 우주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 가능한 질서체에 의해 의도-결정된 인간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능한 '기술방법'의 배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기술'이라는 전통적 '텍크'(technē)의 의미가 '생산'에 대한 제작행위(activity of making)인 것처럼 어떤 목적을 위한 직접적인 도구인 것이며, 이로 인해 다시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한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어떤 '선'을 지향하고 있기에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지적행위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가세트 또한 '기술'이란 인간적이라는 삶의 광대한 영역에 관여하기 위한 인간의 고유한 행위이며 필요로, 인간의 삶 자체를 그에게 의미한다. 그에게 인간이 관계지우는 자연과 세계는 자존적 개념의 것은 아니다. 그들의 의미성은 인간 지성의 해석적 반응의 결과로, 특히 그의 열망이나 의지와 관계지움으로 편의와 곤란의 형태로 존재하게된다. 다른 한편, 인간의 현존이란 유기적 필요에 대한 반응으로보다는 우리의 열망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삶 또한 현존제의 의지된 계획을 실현하고자하는 시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의지행위로의 인간 삶이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인 바 계획'을 실현시키는 형이상학적인 실천적 문제로, '기술'은 바로 그러한 과제에 따르는 인간의 노동을 경감시켜 주는데 있다.

다시 말해, 기술의 명칭을 붙일 수 있는 인간의 특별한 행위란 인간의 삶에 고유한 자기만의 보편적 성격의 구체적인 특수화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절대적인 사실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가세트에게 극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사건에서 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란 비록 인간의 삶이라는 과제를 실행하지만 삶의 계획을 작성하지

15) Ethic. Book 1-7. "The good for man proves to be activity of soul in conformity with excellence ..."

16) Ethic. Book 10-7.

는 못한다. 기술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 즉 삶의 계획은 기술 이전의 문제로 그것은 각 시대, 민족, 개인에 있어서 존재하고자 근원적인 열망에서 나온다. 이러한 열망, 즉 진정한 창조적 소원, 현존하지 않는 것을 필요로 하는 소원은 다른 모든 소원의 원칙이 되며 바로 사람이 존재하고자 원하는 그런 '인간상'과 결부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가세트는 그의 1921년 저서 "무척주의 스페인인"에서 현대의 가장 큰 질병 가운데 하나는 소원의 위기이며 그 소원 능력의 병폐로 모든 현대기술의 전설적인 성취가 무의미해 보이고 유럽 또한 고뇌하고 있다고 비평한 바 있다.

지난 현대건축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러한 소원의 위기는 건축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는 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모더니즘 건축'(Modernism architecture)의 중심적 이데올로기의 하나가 테크놀로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사회구조의 재구성과 미학적 질의 향상, 즉 표준화와 대량생산 그리고 기능적이고 미적으로 우수한 상품의 개발로 사회 문화적 경험의 균형 혹은 비-구획화를 추구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로 이 시기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건축에 있어 과거의 무거운 전통으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사회적이고 미학적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즘 건축에서의 '기술'은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보다는 이데올로기가 그 자체로 점차 변질하여 간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체가 상징(symbol)적 인식대상이 되어 건축가들은 테크놀로지의 표현적이고 심미적인 측면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 같다.

20세기 중엽부터 공학기술에 대한 이상주의적 믿음이나 전통문화에 대한 독단적 해석을 넘어서 과학적 형식성 보다는 문화적 상징성을 현대건축의 표현주제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일부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들에게 모더니즘 건축의 중심적 특성 - 기능성, 추상성, 과학적 표준성, 경제성, 플라톤적 이상향 - 은 더 이상 사회의 진보적 현대화를 위한 필수적 수단과

목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파손시킨 주역의 대명사로 인식된다. 이런 상황하에서 현대건축(contemporary architecture)은 역사적 전통이란 주제의 문제에 서처럼 '기술'(technology)에 대해서도 상반된 두 입장 - 무조건적 숭배와 배타적 증오 - 을 모두 취하게 된 것 같다. 이러한 입장에서 대표적 하나는 기계미학을 여전히 강조하는 하이테크 건축이란 이름의 경향이며,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과 미래 지향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전통의 연맥과 그 문화의 상징-표현적 특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건축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우리에게 철학가 폴 리콜(Paul Ricour)이 강조하는 '현대화'(modernization)로 보다는 인간의 진정한 '문명화'(civilization)로의 '기술'과 건축과의 적절한 존재관계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전자의 건축이란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인간이 거주할 건축공간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의 이미지만을 심미적으로 표현하여 건축이 고도의 과학시대에 중요한 문화주체임을 보여주려는 상업화되어진 제스처에 불과한 반면 후자의 건축 또한 지금의 소비형 산업사회에서 무차별적으로 역사적 상징기호들의 인용으로 전통의 재 창조보다는 건축을 심미적 상업상품으로 가치 절하시키는 모순적 힘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건축의 모순된 관계설정 속에서 인간존재의 새로운 가치들을 담을 현대건축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지난 2세기 동안 과학-기술자는 물론 건축가들에게도 형이상학이란 세계문화의 현대화를 위한 중심적 사고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거부는 철학자 프레드리히 데소어(Friedrich Dessauer)의 설명에 의하면 19세기 이후 현대화의 주체로 받아들여진 과학이 이미 논증되었던 결론을 다시 부정하고 경험주의적 영역을 강조한 반면, 형이상학은 과거속으로 침잠해 지는 퇴보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어 형이상

학에 대한 중요성은 과학과 기술의 논리로 계획되어진 물질적 세계의 급격한 팽창에 반대한 과거의 어떤 가치들을 다시 강조해 보려는 변증법적 움직임 때는 아니다. 그것은 실로 인간의 정신적 세계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개발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특히 인간의 존재적 사고뒤에 머무는 철학자 카시러(E. Cassirer)가 강조하는 신화적 가치와 같은 무엇을 발견하려는데 있다. 그래서 건축에 있어 형이상학의 강조는 물질적 문화의 외적 현상뒤에 가리워져 있는 인간의 존재적 의지세계 즉 그의 신화적 세계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답하고 다시 제시해 보려는데 있다. 이러한 노력은 어떠한 현대건축을 지금과 같은 상업적 표현위주의 심미적 측면에서보다 의미론적 측면에서 다시 이해하도록 하며, 탈-현대(Post-Modern)나 신-현대(Neo-Modern)라 불리는 지금의 형태 표현적 갈등을 넘어서 현대건축에 새로운 표상세계를 열어주는 새로운 윤리, 도덕적 기초를 제시해 주게 될 것이다.

지난 반세기의 건축역사를 돌아 볼 때 현대 건축의 가장 큰 모순은 건축이론가 코메즈(Alberto Pérez-Gomez)의 이해처럼 그것의 본질적 의도가 인간의 선형성(transcendental)과 필연적인 존재적 상징의 표상능력을 상실한데 있으며, 대신 지나친 형태의 상업적 심미화만을 강조한 데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현대건축과 과학·기술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의 심미적 표현방법에 대한 논의, 즉 문화의 외적 현상에 대한 현재의 갈등은 현대건축과 ‘기술’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도리어 ‘기술’을 통한 매너리즘적 물질문화에 대한 더 이상의 강조보다는 지금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형이상학(metaphysics)적이며 신화적(mythical) 의미들의 표상, 즉 ‘기술’을 통하여 현대건축이 다시 회복해야 할 형이상학적 의미성은 과거에 대한

향수나 미래에 대한 이상주의적인 그리고 심미주의적 태도에서가 아니라 건축에 있어 ‘기술’의 존재적 의미를 찾아내고 새로이 구성, 표상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리라 본다. 다시 말해 삶의 계획이 암담하고 불투명하게 될 경우 누구에게 무엇을 기여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기술이나 그 적용은 퇴보의 위협을 받을 뿐이며, 현재와 같은 물질적인 수단의 풍요속에서 인간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상상력을 결여한 현대건축은 심미적 게임의 투쟁과 불안을 안고 모순된 고뇌만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세트의 ‘기술’에 대한 다음의 언급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문화 속에서 현대건축을 새로이 조명해 볼 수 있는 건축적 사고의 적절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기술적인 능력은 그의 지성이 기술적 계획들로 보다는 생동적 삶의 계획들로 충만한 상상력에 공헌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존재자에 있어서만 나타날 수 있다.”¹⁸⁾

참고문헌

1. W. 브뤼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사상. 김진번역, 범우사, 1987.
2. J. L. 아크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한석환번역, 서광사, 1992.
3.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향연·파이돈. 최명관 번역, 을유문화사, 1994.
4. Aristotle. The Metaphysics. trans. by John H. McMahon. New York: Prometheus Books, 1991.
5. Aristotle. The Philosophy of Aristotle. trans. by A. E. Wardman and J. L. Creed. New

17) Friedrich Dessauer (1983), "Technology in Its Proper Sphere," in C. Mitcham & R. Mackey (eds.), Philosophy and Technology, New York: Free Press, p.317-334.

18) José Ortega y Gasset. "Man the Technician" in History as a System and Other Essays Toward a Philosophy of Histo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41, p.137.

York: A Mentor Book, 1963.

6. Reyner Banham.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Cambridge: MIT Press, 1980.

7. José Ortega y Gasset. "Man the Technician" in *History as a System and Other Essays Toward a Philosophy of Histo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41.

8. José Ortega y Gasset. *The Dehumanization of Art*. New York: Doubleday Anchor Books, 1956.

9. Martin Heidegger.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and Other Essays*. trans. by William Lovitt.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77.

10. Carl Mitcham and Robert Mackey eds.. *Philosophy and Technology: Readings in the Philosophical Problems of Rechn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1972, p.317-334.

11. Alberto Perez-Gomez. *Architecture and the Crisis of Modern Science*. Cambridge: MIT Press, 1983.

12. Paul Ricoeur. *History and Truth*. trans. by Charles A. Kelbley.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5.

Study on the Nature of Technology and its Architectural Condition

- Mainly about the Contemplation of Aristotle and José Ortega y Gasset -

Byun, Tae-Ho

(Assistant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It seems obvious to the contemporary eye that modern technology has finally brought chaotic abundance to the present world, and provided a superficial civilization over the last century. Nevertheless, such an argument about the external phenomena of present culture does not help constitute the right track of moder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Rather, this discussion comes to re-signify the importance of critical metaphysics as a part of man's cultural activities, especially the ontological meaning of them. In this point, the research is intended both to re-certify the essential nature and mythic value of technology through reviewing the ancient and modern philosophical contemplations, and to examine its architectural condition against the rapid expansion of commercial material-culture.